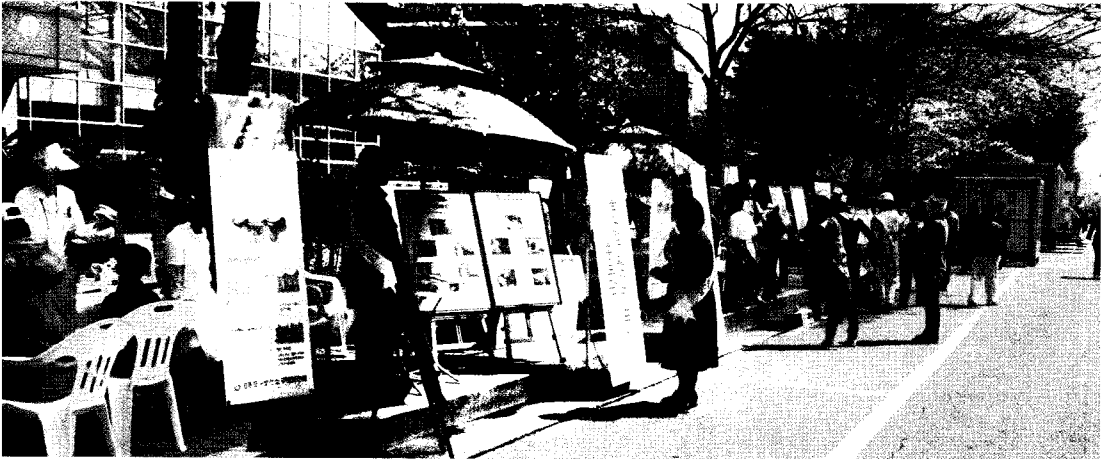


본부가 간다.

윤중로 벚꽃 속 결핵 홍보 캠페인

글과 사진 박연숙(본지가자)

4월이면 높은 빌딩으로 상징되는 여의도는 꿈의 도시로 탈바꿈한다. 바로 윤중로에서 펼쳐지는 벚꽃축제 때문이다. 영등포구청은 4월 6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을 올해 벚꽃 축제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문화예술공연 등 각종 이벤트를 마련했다.



우리협회는 벚꽃축제가 한창이던 4월 8일 윤중로 국회 서문 방향에서 영등포구보건소와 보건단체가 연합하여 벌인 건강캠페인에 참가, 벚꽃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우리협회는 건강캠페인의 일환으로 국회 서문 일대 부스를 마련하고, 결핵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된 홍보패널을 전시하여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또는 친구들과 함께 꽃구경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호기심어린 눈길로 건강캠페인에 참여해 간단한 건강 체크도 받고 기념품도 받아가는 등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결핵협회 부스에 이르러서는 “최근 결핵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 접했다며, 패널을 꼼꼼히 읽어내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이드신 어른들 중에서는 직접 결핵 검진을 받아보고 싶다며 부스를 찾았다가 검진이 준비되어 있지 않자 다소 서운해하셨다가도, 결핵에 대한 친절한 설명에 꼭 한 번 보건소를 찾아 검진을 받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가시는 분도 계셨다.

평소 건강에 관심은 많지만 아무 이상도 없는데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영등포보건소와 함께한 이번 홍보캠페인은 부담없이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보고, 또 평소 궁금했던 건강 관련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일반 시민들에게 결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협회의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이 결핵에 대해 얼마만큼의 관심과 정보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할 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였다. †

- ① 건강캠페인이 열린 국회 서문 일대 전경
- ② 나들이객들이 전시된 홍보패널을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
- ③ ④ 관람객들에게 결핵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된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있다.
- ⑤ 찰싹 핀 벚꽃

